

Taou, 2018, March.

## 형제회 안에서 살아가는 길

이 달의 둘째 주일이다. 오늘 우리 단위형제회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주중 일에 지쳐 있다. 할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다. 공부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서둘러 훑어 보았다. 기도와 토론에 나도 자신 있게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나? 별로 달갑지 않은 동내를 45 분 썩이나 운전하고 지나가야 한다. 조용하고, 풍요롭고, 한가한 시간이 아쉽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서약을 했지? 일년전, “나는 재속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생 동안 충실히 살아가기로 서약하였다.”<sup>1</sup> 이 회칙이 나와 나, 모두들 형제회 안에서의 삶에 동참하기를 서약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2018 년 6 월 24 일이면 교황 바오로 6 세가 그의 교서 “Seraphicus Patriarca”를 통하여 1978 년의 재속회 회칙을 인준하신지 40 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 2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오래 된 회칙의 수정을 확인해 준비 있다. Aggiornamento 로 불리는 수정의 이유, 즉 주어진 시대의 문화에 맞게 카리스마를 살아가는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삶의 방식인 것이다.<sup>2</sup> 1969 년에 있었던 아씨시 총회에서 수도자와 재속인 그리고 여성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었으며, 생활방식 위원회에게도 새 회칙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모색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따라서, 17 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확정 되는데 그 내용이란 세속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방향, 즉 우리의 재속성과 영성에 특별한 무게를 두는 일이었다. 1978 년 회칙은 필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 조명하고, 정립하며. 한데 묶은” 결과물이다.<sup>3</sup> 이것은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체험과 그분의 영감과 지도를 받아드린 회개의 형제자매들이 사부님의 근본정신과 영적 체험으로 돌아가기를 강조하는 것이다.<sup>4</sup> 1978 년 회칙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새로 이해하기 위하여 William Wicks, OFS 가 쓴 A Histor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in the United States Vol. IIA 의 6 장에 있는 The Pauline Rule 를 읽어 보시기 바란다.

이 목상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오래 된 잡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개정된 회칙 출현 25 주년을 기념하는 2003 년 5/6 월 특별호, 제 3 호, 53 권 이었는데, 내용은 국제 형제회나 국가 형제회에서 봉사하시는 지도자들의 사상에 관한 것들 있었다. 내가 읽은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중점을 이루는 것들이 것들 이었다. 프란치스코가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복음과 공동체를 들고 있다. 프란치스코 조직의 형성이 복음에서 나왔다고 강조 하면서, 그 증거로, Higgins 신부님은 이렇게 쓰셨다: “회칙 속에는 상호 인간관계와 삶의 나눔”, ... “형제회,” “공동체,” 그리고 “형제자매”가 각각 여덟 번 썩이나 나온다.”<sup>6</sup> 이 복음과 공동체라는 두 주제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나? 나는 기도서와 책, 쓸 종지와 펜, 친구들과 나눌 약간의 과일과 간식 등등을 모아 가방에 넣었다. 차를 출발하기 직전에 잠깐 멈추고 힘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께 기도로 중얼거리 본다. 성령님은 나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다. 우리들은 간단한 음식을 서로 나누며, 기도를 함께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 했다. 프란치스코인으로 살아가는데엔 단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서로 호소 하기도하고 실제로 서로 돕기도 하며 살아간다. 성 프란치스코의 방식으로 복음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매일 매일의 수련인 것이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에, 홀로 갈 수는 없다.

나는 새 삶의 길로 들어섰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함으로서, 형제회란 "사랑의 공동체, 끈임 없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돕는 곳" 7 이라 불러지는 것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곳은 "나"라는 존재가 설 수 있는 곳이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6 월에는, 여러분의 형제회에서 회칙 40 주년 축하식을 계획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다. 다음 해 계획표에도, 또 다음해에도... 그 때마다 회칙을 공부하고 기도해 가노라면 우리의 서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도와, 묵상, 그리고 실천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기로 서약한 회칙이 쉽게 보이지는 않을 지라도, 이것은 복음이 주는 짙막한 명령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장 12 절)

영속적 양성을 위한 제안:

Michael Higgins 신부님은 회칙 안에서 "형제회," "공동체," 그리고 "형제자매,"라는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해 되는지를 깊이 연구해 보기를 제안해 주고 있다.

FUN MANUEL 속의 복습자료와 보조자료의 장을 찾아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 성소, 회칙, 우리들의 정체성, 형제회와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1. 재속 프란치스코회 예절서, 24 쪽
  2.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 IIA 권 1943-1978, 110 쪽
  3. FUN MANUEL,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 및 회칙 3-23-11, 26 쪽
  4.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역사, 174 쪽
  5. Baker and Mulqueen, The Privilege of Being Secular, The Cord, 122 쪽
  6. Higgins, 프란치스코 회칙, 상호관계에의 초대, 110 쪽
  7. FUN MANUEL, 기본 요소로서의 형제회 12 쪽